

# 韓國古建築의 外部空間構成에 關한 小考

金 濟 東

(韓社大學講師)

## I. 序 論

### 1. 研究目的

많은 변혁이 우리들 주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건축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가?

지리풍토적인 모든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랜 시일 동안 서서히 형성된 우리 고유의 전통건축은 서구풍의 근대건축에 의해 파괴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외래사조 및 문물의 무비판적인 도입으로 인하여 한국의 건축은 무질서한 국제양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며 오래전부터 전통을 되찾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건축계에 있어 왔다. 그러나 공간과 조형의 문제를 전통적인 양식을 본뜬으로서 전통을 계승하려는 경향에 의해 엄격한 의미의 한국 전통건축의 현대적 해석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건축을復古하는것이 전통건축의 현대적 실현이 아닌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양식의 답습이나復古가 아닌 새로운 발전과 계승을 위한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小論을 쓰는바이다. 이때까지 한국 전통건축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많이 행해져 왔는데 본小論에서는 한국古建築의 配置計劃과 外部空間에 대해서 小考를 해 보기로 한다.

### 2. 研究対象과 方法

한국의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통건축은 서울에 있는 경복궁 등의 궁궐건축과 종묘 성균관 사직단등 특수 건축물과 지방에 산재 해 있는 사찰 建築物이 대부분이다.

古建築物은 대부분 원형 보존이 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배치에 있어서도 많은 변형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小論에서 다룰 한국 전통건축의 外部공간에 대해서는 종묘와 성균관 그리고 대표적인 사찰등 비교적 원형 보존이 잘 되어있는 건축물에 대해 고찰을 해보았다.

여기서 고찰을 진행시키는 방법은 전통건축을 역사적 개념에서 고찰 하는게 아니고 횡적으로 잘라 연구하는 것으로 시대적, 지역적인 것에 관계없이 평면적인 배치 기법과 외부공간에 대해 고찰을 시도 하였다.

## II. 配置計劃과 外部空間

建築空間은 어떤 建築物과 그 建築物을 認知하는 사람

과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며 이 관계는 시각이 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청각, 촉각, 촉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비와 바람 그리고 비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등의 소리와 광선의 강도와 방향같은 것에 의해서도 전혀 별개의 느낌을 끼칠때가 있으며 사람의 움직이는 速度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고속의 자동차를 타고있는 사람에게서는 주위의 풍치나 도로 바닥에 쓰여진 글씨 같은 것이 자동차 밖의 사람과는 달리 보여진다.

그런데 이와같은 건축공간을 건축내부공간과 건축외부공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건축내부공간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건축물 안의 공간을 말하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인 바닥과 벽 그리고 천정의 3요소로 경계가 정해지는 공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건축의 외부공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건물 바깥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외부공간은 건축내부공간 조성에 필요되는 것보다 한 가지 요소가 적은 바닥과 벽 두 면의 사용만으로 형성되어지는 공간인 것이다. 즉 건축에 있어 외부공간을 형성하는 법은 건축물의 Facade와 바닥을 적절히 구성하여 외부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기의 외부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하는것이다.

本小論에서는 형성된 외부공간을 찾아보는게 목적이므로 배치계획을 관찰함으로써 외부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알아볼 수 있을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전통건축의 배치계획을 관찰함으로써 한국 고건축의 외부공간 구성 원리를 찾아 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 2. 韓國古建築의 配置技法

### (1) 寺刹 建築의 配置技法

한국 전통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건축물로, 궁궐, 사찰 및 종묘 성균관등 공공 건축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 지역적 시대적으로 수없이 건립된 것은 사찰건축이라 할 수 있다. 문공부에 의하면 '80년 3월말 현재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 사찰수는 1千9百여개소 이라고 한다. 등록되지 않은 작은 절까지 합치면 수천군데

가 될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 전통건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찰의 기본배치를 통해서 한국고건축 외부공간 조성의 편모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사찰 배치계획에서 山門의 출현에서 부터 進入空間 이 시작된다. 보통 山門은 一柱門 또는 不二門이라고 불리

우는 기둥 한줄만의 門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부터 사찰의 영역이 시작된다. 一柱門 앞에는 대부분 개울이 山門을 따라서 혹은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다. 수풀속을 한참 걸어가면 中門이 나온다. 中門은 절의 규모에 따라 1개 또는 2개가 있다.

中門을 지나면 대개 金堂의 門이나 강당으로 사용되는 누각이 있다. 이 누각을 지나면 金堂이 나온다. 金堂은 그 절의 상징하는 부처님을 봉안한 중심법당이다. 따라서 金堂의 前庭이 그 사찰을 主外部空間이 된다. 이곳은 다른 어느 外部空間보다도 넓게 꾸며져 있으며 으레 塔과 石燈이 있다. 金堂을 중심으로 다른 부처나 보살을 모셔 놓은 법당과 法經의 보관소인 藏經閣, 鍾閣, 참선을 하는 祥房, 스님이 거처하는 僧房이 자리잡고 있으며 큰 절의 경우는 스님들이 수도하는 암자가 法堂을 지나서 한참 올라간 산골속에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다.

## ② 官闕建築의 配置技法

한국 전통건축물중 寺刹建築物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나 宮闕建築物은 이조시대의 것만이 伝해 내려오며 원형의 많이 변형되어 있다. 궁궐 각 건물에 대해서는 기록

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배치에 관하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문헌을 통하여 또 현지답사를 통하여 궁궐건축물의 배치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다. 대체적으로 有軸對稱의 배치를 하였으며 부속 건물은 지형에 맞추어 配置하였고 前朝後寢의 통일성 있는 體系를 이루었으며 主建物は 반드시 2단의 기단위에 설치하여 主空間의 중요성을 표현하였다. 主軸에서 벗어난 지역의 건물들은 지형과 대지조건에 따라 전체의 조화에 맞추어서 건물을 배치 하였으며 후침부분의 건물배치는 基本軸은 없으나 세밀히 고려하여 배치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③ 特殊建築物의 配置技法

종묘는 그 建築目的이 역대 王과 王妃의 神主를 봉안하여 엄숙한 예식을 거행하는데 있으므로 그의 건축목적에 맞게끔 배치 계획 되었다. 이조시대의 종묘를 보면 그 계획에 따라 正殿을 비롯한 前庭과 그에 따른 건축물을 橫方向으로 배치 하였다. 회랑 대신에 石담으로 쌓고 東西로 門을 내었다.

사직단은 도성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社壇은 境內 東쪽에 있다. 양단은 각각 四方이 2丈5尺 씩이고 높이

는 3尺 배곳에 계단이 설치 되어있다. 壇을 가운데 두고 주위로 넓은 뜰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土城을 쌓았다. 사방으로 門이 나있으면 正門은 北門이다.

성균관의 배치는 前廟인 남방구역에는 大成殿을 중심으로 東과西에 제실이 애고 後學인 북방구역에는 명륜당이 중심이 되고 左右에 東西劑가 있다. 남방구역과 북방구역 사이에는 나즈막한 토담으로 남북 공간이 서로 폐쇄되어 있으며 이 토담은 외곽담과 연결되어 하나의 폐쇄된 공간을 형성한다. 이 배치도 균제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부속 건물은 지형에 맞추어 변화있게 배치되었다.

## ④ 住宅의 配置技法

위에서 살펴본 궁궐건축이나 사찰건축 공공건축물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건축 되었으나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감각에 의해 지어진 것이 주택이라 하겠다. 주택에 있어서의 공간은 건물과 건물에 의해서 구획되는 마당이라고 불리우는 외부공간이 있다. 이 마당이라고 불리우는 외부공간이 있다. 이 마당에는 그 용도 및 위치에 따라 바깥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등이 있으며 각개 마당을 살펴보면 바깥마당은 종류이상의 주택의 경우, 행랑채와 벽으로 둘러싸인 마당으로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이 마당이 된다. 손님이 타고 오는 가마나 짐등을 여기에 내려 놓으며 住宅과 外部와의 접촉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안마당은 주부와 하인들의 작업공간이다. 별당마당은 별당앞에 있는 마당으로 그 주위는 별당건물외에 폐쇄적인 벽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여기에는 조경에 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 ⑤ 마을의 配置技法

한국의 험준한 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나 몇채의 혹은 수십채의 집으로 형성된 마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지바른 곳에 배산임수하여 알맞게 들어서서 형성되는 한국마을의 모습은 분석해 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스런 記述을 찾아볼 수 있으며 지역과의 조화 사상에 기초한 공간 형성 개념이 일반 서민 生活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촌락에서 각개 민가의 배치를 살펴보면 집들이 서로 마주보며 나즈막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있으며 집과 집이 서로 엮혀 배치되어 일견 무질서 하게 보이나 질서 정연한 가운데 각개 民家가 적절한 위치를 잡아 좁아서 外部空間을 形成하여 전체적인 통일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이 엉켜서 뻗어가는 모양에서 한국특유의 外部空間 形成의 울동미를 찾아볼 수 있다.

## Ⅲ. 韓國 古建築의 外部空間構成原理

### ① 外部空間의 連續性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사찰건축을 살펴

보면 대부분이 산간벽지에 위치해 있으며 그 배치에 있어 지형이나 주위환경과 잘 조화 적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형을 따라 배치를 한 사찰건축에서 형성된 외부공간의 구성원리를 찾아 낸다면 연속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사찰의 배치 계획에서는 점차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하여 관찰자가 걸어감에 따라 全景이 나타나며 대웅전 前庭에서 종교적인 극적효과를 주는 배치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면 고저차의 이용이나 시냇물 고목등을 이용하고 울창한 수풀의 산이나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크고 작은 건축물을 변화있게 배치하여 연속성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연속성에 대한 고려에서 특이한 건조물을 보면 山門이나 長性を 찾아 볼 수가 있다. 어떤 體制를 필요로 하는 사찰건축에서 山門의 존재는 다음의 공간에 대한 방향성과 기대감을 야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두번째 예로는 한국의 대부분의 마을 입구나 혹은 사찰 입구에서 볼 수 있는 경계의 표지역할을 하는 長性を 들 수가 있다. 마을入口에 건립되어 있는 솟대와 돌무더기, 성황당을 보면 관측자는 벌써 어떠한 공간의 출현이 예상하게 되는 것이다.

외부공간을 연속성에 대한 실례의 배치를 보면서 살펴 보기로 하자.

### ① 雙溪寺

一柱門에서 대웅전에 이르는 길은 대개 지형에 따라 휘어져 있는데 쌍계사는 산지 가람인데도 일직선상으로 놓여져 一柱門에서 보면 금강문과 天王門을 통하는 길이 일직선상으로 보인다. 石橋와 계단으로 된 여러 山門을 지나고 누각 앞의 계단을 올라서 누각밑의 계단을 다시 올라가면 대웅전 앞의 中庭이 나타난다. 이것은 부처님 앞에 들어서서 사람의 마음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外部空間구성이라 하겠다.

### ② 華嚴寺

남북을 주축으로 북에 대웅전이 있고 그 西쪽에 의향각 원통전 東쪽에는 막부전이 있다. 대웅전의 측면쪽과 비슷한 쪽의 대지를 지나 大石階를 내려서면 동서탑이 中庭內에 있다. 사찰 영역이 비교적 좁고 경사가 심한 지역이므로 경사에 따라서 건축물을 배치 하여서 대웅전까지는 계속 깊은 경사로 이루게 하여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공간의 연속성을 이루게 하였다.

### ③ 梵魚寺

시내를 거슬러 올라서 숲길이 끝나면 범어사 경내로 들어 선다는 것을 암시하는 一柱門이 나타난다. 여기 山門은 三重으로 세워져 있어 一柱門~天王門 不二門이 樓門과 대웅전으로 연결되는 배열되어 일체감 主軸線에 있는 공간의 구성 기교를 보여주며 대웅전 前庭에 석탑과 석등이 배치되어 외부공간에 강조를 주고 있다. 山地의 자

연지형을 따라 몇단씩의 돌계단으로써 점점 높아진 공간이 계속되며 三重의 山門이 끝나는 보제루 앞에는 30단의 높은 돌계단을 통하여 樓에 오르게 되고 樓앞 넓은 광장공간이 이 사찰 외부공간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山地가람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외부공간의 구성 기교인 것이다.

### (2) 外部空間의 體系性

한국 전통건축의 배치에 있어서 건물기능과 목적에 배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러한 배치에서 건물과 건물 전면의 접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간을 살펴보면 이러한 공간 상호간의 체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찰에서는 절의 모든 수행사가 행해지는 대웅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으며 대웅전을 받치고 있는 기단의 규모도 다른 부속 건물들의 기단보다 규모가 크고 높게 되어 있어 이 대웅전 앞의 前庭과 대웅전 건물 그리고 옆으로 둘러싸인 회랑들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공간이 主外部空間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외 다른 법당이나 장경각 승방등의 건물들은 대웅전앞 뒤로 비껴 배치하여 이들 건물들 상호간에 형성되는 空間이 副空間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山門을 지나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진입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進入空間에서 主空間으로 主空間에서 副空間으로 進行되는 空間의 질서 내지 체계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형적인 마을을 찾아가 보면 장승이나 서낭당 같은 것을 마을의 入口와 마을 内部와는 서로 경계를 가져서 마을 全体가 하나의 집단적인 空間을 형성하고 있으며 길을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공동우물을 구심점으로 하여 몇 채의 民家が 독자적으로 정원을 가져 民家の 담과 담으로 이루어지는 한 개의 외부공간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마을 전체의 외부공간→우물을 구심점으로 한 공간형성→민가 독자정문인 南三門이 나타난다. 이 南三門의 위치나 규모가 다음에 나타날 공간의 규모를 암시해 주고 있다. 正殿앞의 장방형의 광장이 主外部空間이 되는 것이다. 이 광장은 四方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안정된 폐쇄감을 가지게 되고 바닥은 거친 화강석 조각으로 불규칙적인 무늬로 깔려 있으며 회색돌의 단조로운 색감과 미묘한 색채의 木構造와 담뱃을 둘러싼 무성한 숲의 녹색은 이 外部空間의 색채를 만들어 주고 있다. 광장은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 자연 배수가 되도록 고려되었으며 중앙의 石步造는 지면보다 약간 높게 되어 있다. 환언하면 主空間에 대한 고려가 가장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正殿의 서쪽에 위치한 부사당인 永寧殿은 그 외부공간 구성에 있어 주공간인 正殿앞 광장보다 규모에 있어 약간 正殿보다 작으며 또한 그 높이도 낮게 되어 있다. 永寧殿 앞 광장은 마찬가지로 장방형이나 크기가 작고 정

전앞 광장과 마찬가지로 엄숙한 분위기가 스며 있다. 다음, 부속공간인 여러 종속건물로 가는 石步造는 벽에 대해서 약간 각도가 지게 되어 있어 관측자의 외부공간에 대한 감각과 변화를 야기 시키게 되어 있다. 관측자에게 정적감을 주는 외부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든 지형적인 조건에 대한 충분한 이용과 건물 외관에서 풍기는 부드러운 감 두개의 주요 건물의 앞음새로 외부공간에 균형을 주는 등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体系아래 계획되어진 것을 찾아 볼 수가 있다.

### (3) 外部空間의 閉鎖性

한국 전통 건축물중 사찰건축이나 궁궐, 공공건축물 들은 거의 대부분은 그 영역의 둘레에 화랑이나 두꺼운 담으로 둘러서 그 中庭에 깊은 폐쇄감을 줌으로써 외부공간을 적극적인 공간으로 형성 하였다.

강한 질감의 판석이 깔린 바닥면과 회백색의 담 그리고 무수한 기와에서 느끼는 재질감이 있는 지붕, 이들 면으로써 둘러 싸여져 中庭을 강한 폐쇄감을 가지게 되어 외부와는 절연된 성역이라는 기분을 갖게끔 계획되어져 있다. 담에 난 개구부도 광장의 네 모서리가 아닌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모서리에 門이 난 경우보다 훨씬 더 폐쇄감을 주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폐쇄감을 형성하여 궁궐에서는 신분의 차이를 강조하고 사찰에서는 종교적 승화감을 노렸으며 종묘등에서는 사당건축으로써 필요한 적막한 분위기를 나타내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건축물을 볼 때는 강한 폐쇄적인 공간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전통 건축물 중 촌락의 民家の 경우를 보면, 토담이나 석담의 높이가 사람 시선 높이보다 아래에 있어 어느 정도의 폐쇄감을 주나 시각적 연속성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 담 너머로 주택의 아름다운 처마꼭선이나 창문 윗부분까지도 밖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사람 눈높이 정도의 돌출담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형성하였고 대문을 통하여 샛문을 통해 안채로 들어가게끔 계획되어져 있다. 골목과 소솔대문을 지나 샛문을 통하는 낮은 돌 흠담으로써 폐쇄된 공간을 형성하여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공간계획은 한국 전통주택에서만 볼 수 있는 뛰어난 공간 개념의 구체화 예인 것이다. 즉 낮은 완만한 흠담벽으로써 공간의 폐쇄성을 줌과 동시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교는 빼어난 공간개념의 구체화인 것이다.

### (4) 外部空間과 内部空間의 貫通性

다음에는 공간의 貫通 또는 透過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전통적 한국 건물에 사용되어진 가구식 구조에 있어서는 기둥과 보를 제외한 전체 벽면이 개구부가 될 수 있으며 주요 문제는 개구부를 어떻게 내느냐에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벽을 메꾸느냐 하는가에 달려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해서 가구식 구조의 건물은 개구부가 넓고 그들간에 서로 침투되는 内部空間과 外部空間을 가지게끔 계획되어져 있다. 창문은 주거 생활에 필요한 개구부의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나 이렇듯 건축 内外空間의 침투성 계획에 효과적인 요소로 많이 이용되게 되었다.

안방에서 뒷마루를 통하여 밖을 내다보면 서까래의 선이 面을 이루어 이면과 하늘을 배경으로 정원의 초목들과 어울리는 공간을 형성한다. 대청에서는 들어 열거를 만들어 매달아 올리게 하여 확트인 시계를 조성한 것 등 한국 건축의 개구부 계획에는 이렇듯 内外空間의 침투에 대한 고려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연과 人間의 合一思想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창과 문을 통한 建築 内外空間의 침투외에 한국의 전통적인 유희목적 공간의 정자 계획에서 自然과 建築物의 교류를 엿볼 수가 있다.

기둥과 바닥과 지붕만으로 이루어진 이 정자는 유희를 위한 공간 구성이며 자연에 파묻혀 있어 自然의 모든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끔 계획 되어져 있다. 이와 같은 자연과 인간과의 혼연일체 사상에서 나온 건축 内外空間의 침투는 한국 전통적인 건축공간 계획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 4. 結 論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 계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간 구성 원리는 連續性, 體系性, 廢鎖性, 貫通性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다른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리라 믿는다.

이러한 공간 구성 원리를 있게한 근본적 思想은 자연과의 조화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連續性의 경우를 보면 사찰건축의 山門에서부터 대웅전까지 이르는 경로를 따라 점차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한 것은 대웅전 앞의 주공간에서 종교적 승화를 얻기 위한 의도적 배치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가람배치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후 부서의 변천과정을 보면 주위환경 즉 주위의 지형적 조건에 순응하고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山入口에 一柱門을 배치 하였고 냇물을 건너서 天王門, 그리고 계단적으로 올라가서 樓를 지나 산허리 적당한 곳에 대웅전을 자리잡았으며 대웅전의 옆뒤로 비껴서 부속 건물을 배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배치 하다 보니 외부공간의 연속성을 더 일층 강조케 되었던 것이다.

두번째 구성원리인 貫通性에서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이 자연과 어울리고 자연속에 흡입 되려는 자연과의 조화사상을 명백히 엿볼 수 있다.

(27페이지繼續)